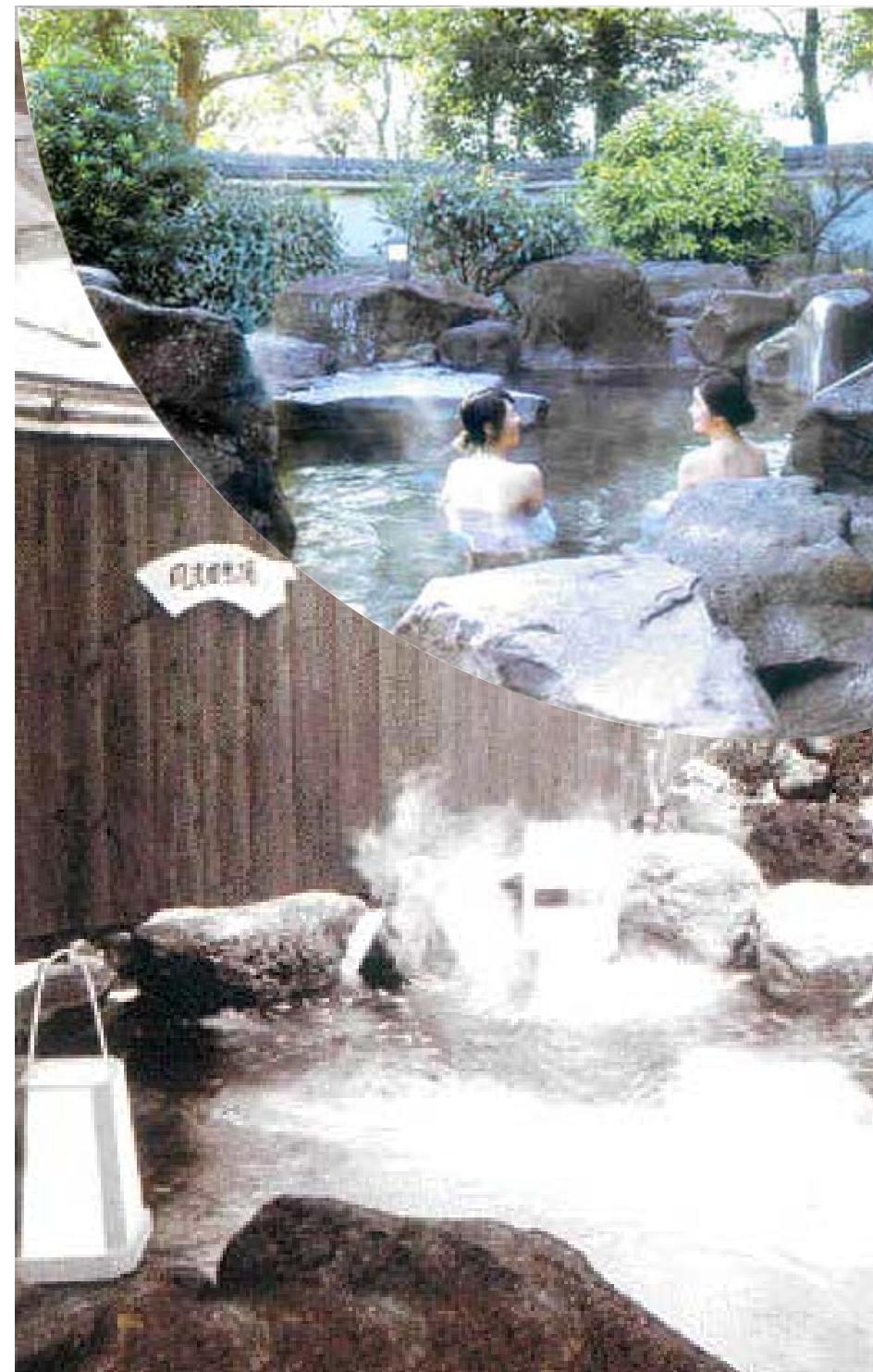




툭! 푹! 봄을 알리는 꽃망울 터지는 소리가 남녘에서부터 들려온다. 살랑대는 바람은 마음까지 설레이게 한다. 봄맞이 국내 꽃 여행도 좋지만 30~50만원대에 크루즈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다면 한 번쯤 계획을 세워봐도 될 듯 싶다. 후쿠오카를 통해 규슈 북동부에 위치한 오이타현 인근 온천여행과 골프여행을 2회에 걸쳐 실을 것이다.

① 크루즈로 떠나는 日本 -오이타현



오이타현에 가기 위해서는 후쿠오카로 가야 한다. 광주에서 부산으로 이동 후 부산국제부두에서 2만t급 카렐리아 호를 타고 후쿠오카로 출발한다. 하룻밤의 선내에서 숙박은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한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가족·동료·연인·이웃들과 함께 여행을 나섰다는 설레임과 함께 약간 흔들리는 선내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꽂을 피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살짝 선실에서 빠져나와 북극성을 찾아보고, 주변의 아름다운 별들과 만남을 가져보는 것도 낭만적이다.

선내에는 공동 목욕탕과 면세점, 레스토랑이 있다. 바다 한가운데서 즐기는 목욕은 이번 여행에 대한 설레임의 신호탄에 불과하다.

“유황산의 연기가 저멀리 보인다.……많은 이들이 말하듯 이곳 한다고 원은 정말 낭만적 그리움이 깃들어 있다. 포근하고 밝고 아득한 생각이 들게 하는 곳이다.”

1968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일본 규슈 오이타현 고코노에정(町)의 풍광을 묘사한 글이다.

일본 규슈 북동부에 위치한 오이타현(大分縣)은 풍부한 자연의 혜택을 받은 ‘축복의 땅’이다. 고원의 경암합과 이를다운 해안, 그리고 죄고수질을 자랑하는 온천 등을 감상, 체험할 수 있다.

현 청 소재지인 오이타시(大分市)는 그리 멀지 않다. 베�후(別府)와 후쿠오카(福岡), 나가사키(長崎) 등 규슈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오이타현의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의 비중은 매우 높아 오이타공항과 후쿠오카공항의 표지판은 한글표기를 병행하고 있으며 공항직원 대부분이 한국어가 가능하다.

오이타, 베�후, 후쿠오카, 유후인 등 현 내 주요 관광도시의 표지판도 한국어 표기를 함께 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에는 한글 안내책자 준비돼 있어 불편이 없다.

오이타현은 산과 바다, 고원 그리고 온천이 어우러진 고장이다.

고대부터 이 온천의 대부분은 현의 중앙부를 거의 동서로 나란히 위치한 쓰루미·유포·구주 등 새로운 화산을 만들어 낸 지하의 마그마로부터 열과 화학 성분의 균원인 학산성의 온천이다.

오이타현의 온천은 원천의 약 85%가 42°C 이상의 온도로 유지하며, 온천수의 수질이 다양하고 온천 수량의 방대함은 물론이고, 고온의 온천이 많다.

특히 구주산(九重連山)에 자리잡은 스지유온천(筋肉溫泉)은 이름 그대로 심줄에 관한 병에 잘 듣는다고 유명한 온천이다. 이곳에서 가장 큰 온천은 1000여년 전통을 자랑하는 스지유온천이다.

가족·연인과 함께 봄 나들이…스지유 마을 6곳 온천 자유롭게 이용

해발 1천m가 넘는 깊은 산속에 있으며 온천 요양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온천 마을에는 30개의 일본식 전통 여관이 있으며 ‘유유태이 호텔’은 이 온천마을에서 가장 큰 호텔이다. 1층과 2층에 남·여 온천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근육에 좋다고 해서인지 몸을 담그고 있으면 나른해 진다는 느낌보다 전신에 기력이 충만해진다. 온천 후에는 2층에 있는 일본 전통분위기를 살린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해보자. 호텔 입구에는 일

본 전역에 유명한 하얀색 그레이드 피레니스종 ‘엔젤’이 손님을 맞는데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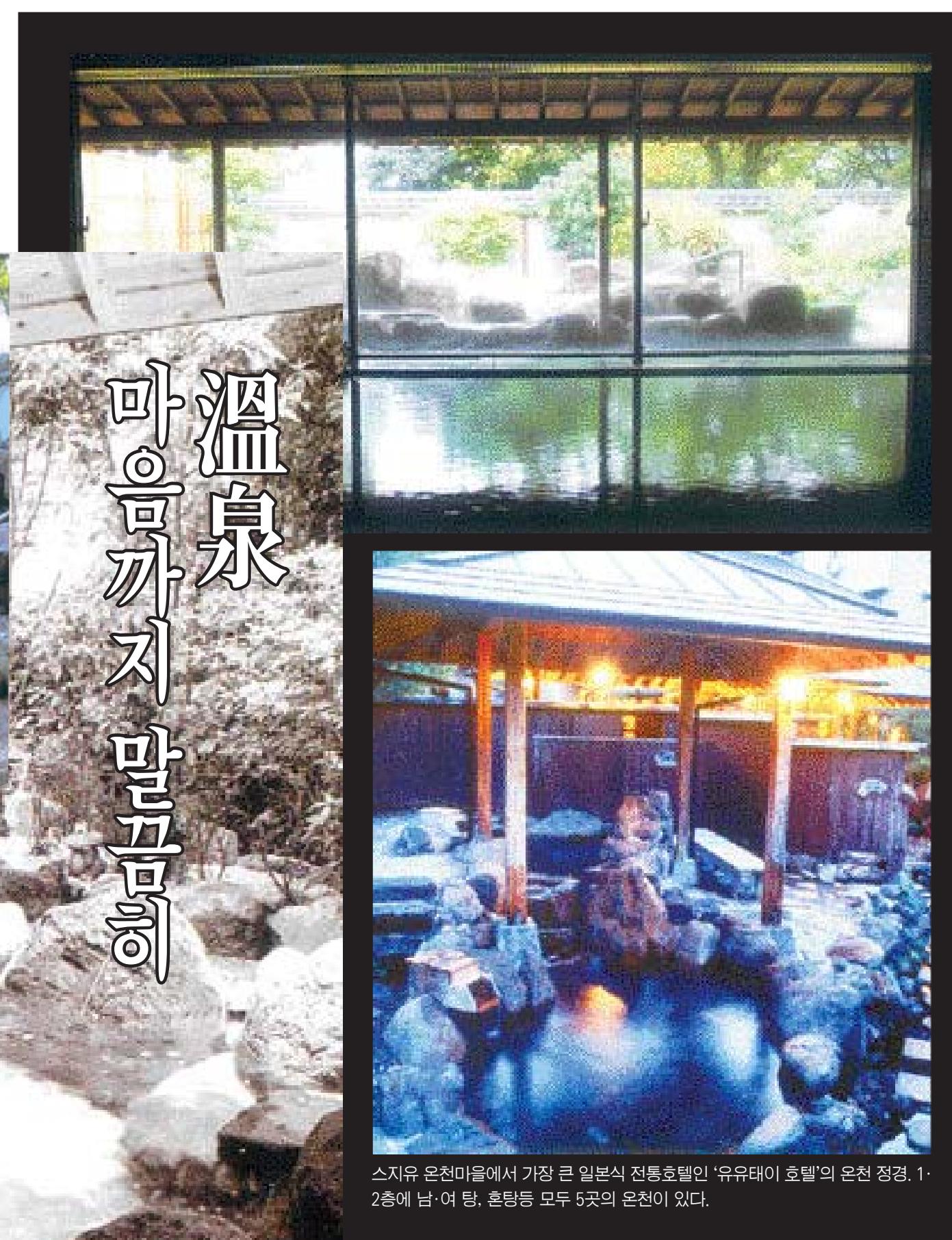
30개 여관에서 숙박하는 손님들은 스지유마을에 있는 6곳의 온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남탕과 여탕으로 구분돼 있으며 훈탕을 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유카타(浴衣)라는 일본 전통 의류를 입고 온천을 이용하면 된다.

조이트래블에서는 구주산에 위치한 ‘야마나미 콘도’에서 숙박을 하고 2회의 온천과

구마모토 성, 태재부 만천궁, 오판리 공원, 원

송이 공원 등을 둘러볼 수 있는 33만9천원의 상품이 인기가 있다. 또 유후인·베후관광과 스지유온천에서 피로를 풀 후 구주산의 현수교와 세계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분화구인 아소산 나카다케 화산 분화구, 쿠마모토성, 태재부천만궁을 둘러보는데 하루는 일본의 전통온천을 경험하고 한번은 최고급 호텔에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상품은 47만9천원이다. 문의: 조이트래블 062-234-3222.

/오이타현=글·사진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지유 온천마을에서 가장 큰 일본식 전통호텔인 ‘유유태이 호텔’의 온천 정경. 1·2층에 남·여탕, 훈탕 등 모두 5곳의 온천이 있다.



스지유 온천마을입구에 30여개에 달하는 여관을 소개하는 간판이 인상적이다.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힐링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벌초를 하지 않아 황폐화된 묘, 폐가 벗겨진 묘, 동절기장을 거치며 불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 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게 달하고 있습니다.

●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해야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 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하지 본 사람들은 봉송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자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봉안 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주지 합장 -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대지공인증개사

(공정 책임증명)
핸 010-8572-8985

구합니다.

시내주유소구함
공시지가 아하도지 구함(금액무관)
임대주택이 많은 상가건물구함
관리지역 임야 구함

매각증기대상들

『신안동 상업지』
대지339㎡ 조립식 건물있음
미293억원

『부지가치 있는 토지』
광신구 우산동 대지 1883㎡ 매

2억7천만원

『당양군 대덕면 임야』
18032㎡ 매3.3㎡당 4억3천

원 관리지역 2차선도로 150

미점(공장, 물류창고, 사회복

지시설작용)

『당양군 칠평면 임야』
36023㎡ 매3.3㎡당

2만6천원 2차선도로 85m점

『혹성동 자연녹지 접종지』
9300㎡ 매3.3㎡당 180만원

농지전용 비용75% 물류창고와

『임동 주거지역 8차선대로변

주공아파트 정문간나편

대지900㎡ 매 7억5천만원 (전

시판매장, 물류창고, 사옥작업)

『중흥동 35m 대로변』
대지920㎡ 현장식수당2층 건

물2층 미9억5천만원

(고급식당, 시설, 물류창고, 전

시판매장, 가전디자인)

A+ 에이플러스공인증개사

시장호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판설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Tel: 062)973-9174, 016-767-8800

토지 구함 수완지구 건축상담

첨단지구상업용지 주유소

651평 35억 600평 16억

풀프린 습장 : 120억

광주지역 녹지

주유소부지 890평 980평

동부광장부지 3900 3600 4900평

수원동 4차선 1200평 1800평

복구본동 850평

전용가능한 금 매물

자연부지 : 3800평·대형차량용 6차선회

상시부지 : 2800평·평동광장인근 특가단단

신창백지개발지구

200평 4차선 80평

상업용지 140평 균생 122평 80평

장용가능한 금 매물

자연부지 : 3800평·대형차량용 6차선회

상시부지 : 2800평·평동광장인근 특가단단

우왕암 아

(연수원 복지시설 광장 촉사 등)

단지 25만평 좁은 142평 보상면평

보상 60만평 광장 60만평

화순 100만평 광장 100만평

광장 100만평 광장 100만평